

## 안도-답콕, 마약 중독 회복·사회복귀 지원 '맞손'

예방부터 재활까지 통합 대응 체계 구축·협력  
청년·중독자 중심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추진

사단법인 '안도'와 '대학을 위한 마약 중독 예방 활동센터 답콕(DAPCO)'이 중독 예방부터 회복, 사회 복귀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안도(대표 유효경)는 최근 (사)대학을 위한 마약 중독 예방 활동센터 답콕(이사장 두상당)과 마약류 등 중독 문제의 예방·회복·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독 문제를 단순한 예방 차원을 넘어 회복과 사회 복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학과 청년, 중독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마약류 등 중독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 공동 추진 △중독 당사자 및 취약군의 회복·사회복귀 지원 △대학·지역사회 연계 재활 및 회복 지원 체계 구축 △심리 상담·약물치료 등 전문 자문 협력 △관련 사업 공동 응모 및 수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예방과 회복을 잇는 현장 중심의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중독 대응 체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안도는 중독 예방 교육을 비롯해 교정

출소자 회복 지원, 지역사회 연계, 인권옹호 활동 등을 전개해 온 비영리기관으로, 중독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안도는 최근 (사)대학을 위한 마약 중독 예방 활동센터 답콕과 마약류 등 중독 문제의 예방·회복·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적과제로 접근해 왔다. △조기 개입 △회복 지원 △난인 해소와 인권옹호 △지역 사회 기반 자립 지원을 축으로 '회복의 선' 전망이다.

안도는 집단 프로그램과 개인·가족·커뮤니티 활동을 주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답콕이 추진하는 대학·

이번 협약으로 답콕이 추진하는 대학·

독 당사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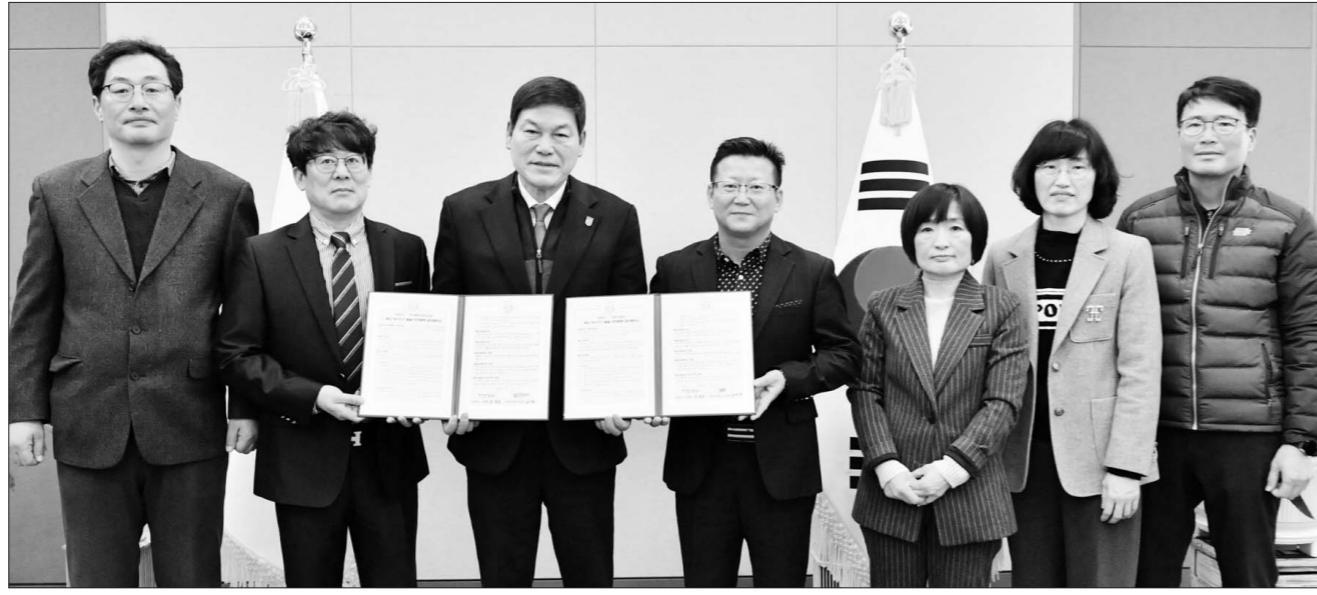
박상규 답콕 사무총장도 "선한 마음으로 환우를 돌보는 공간들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담양군-한전-우체국, 복지 위기 가구 발굴 힘 모은다

지역 돌봄 체계 강화  
촘촘한 복지망 구축



담양군은 복지 위기 가구의 조기 발굴과 지원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전MCS 담양지점, 담양우체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체계를 강화하고 촘촘한 사회 복지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한전MCS 담양지

점, 담양우체국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복지

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복지